



“바쁘다 바빠” 추석을 10여일 앞둔 20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공판장에 쌓인 과일 상자들을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공판장 관계자는 “올 추석에 예년보다 보름 정도 늦어 당도 높은 과일들이 많고 출하량도 늘면서 작년 대비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과일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

몸도 불편한데... ‘원정등교’하는 장애학생들

광주교고 특수학급 설치율 36%...남구 17곳 중 2곳 ‘최저’ 교실수 부족 이유 설치 기피...학생들 북구·광산구로 등교

광주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교가 턱없이 부족해 광산구와 북구 등지로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 고교 수는 67개교로 이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수는 전체의 35.82%인 24개교·53학급이다. 특수학급은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별도 학급이다.

남구는 모두 17개 고교가 있으나 특수

학급 설치 학교는 2곳뿐이다. 구별로는 ▲동구 5개교 중 3개교(설치율 60%) ▲서구 8개교 중 5개교(62.5%) ▲북구 21개교 중 6개교(28.57%) ▲광산구 16개교 중 8개교(50%) 등이다. 특수학급 수는 동구(7개)·서구(12개)·남구(4개)·북구(14개)·광산구(17)개 등 53개 학급이다.

이 때문에 남구 장애 학생들은 광산구 등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재 남구 거주 장애인 고교생 수는 남학생 52명·여학생 56명 등 모두 108명이다.

이들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하는 데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남구엔 장애인들이 취업을 위해 선호하는 전문계 고교인 광주여상·동일미래과학고·송원여상 등 3개교에도 특수학급이 없다.

광주 지역 사립학교는 교실 수 부족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광주지역 24개 고교 중 사립학교 수는 모두 4곳(16.67%) 뿐이다.

장애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부족한데도 시교육청과 사립학교 측 대책은 전무하다.

장애인 학부모들 사이에선 해당지역 초·중학교 특수학급 수만큼 고교도 특수학급 수를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유선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한 지자체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10개 있다면 해당지역 고교에도 10개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장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내에서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교 수도 지난해보다 2개가량 줄었다”면서 “사립학교의 교실 수 부족, 일각의 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특수학급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묘수 안보이는 ‘광주 경양초 재배치’

운암3단지 주공 재건축 추진...10~15학급 증설 필요

‘건물 재배치-예술고 이전’ 놓고 학부모·교육청 입장차

광주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초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이게 될 경양초등학교 재배치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운암3단지 주공아파트는 1984년 2020가구 규모로 준공된 노후 건물로 2015년 7월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약 38개 동 최고 29층 규모의 사업이 승인을 받게 되면 일반 분양 가구를 고려할 때 10~15학급의 증설이 불가피하다. 광주시교육청은 현 경양초등학교 부지에 건물을 전면 재배치하는 방안과 200여m 떨어진 광주예술고 터로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양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학교 운영 중단을 우려한 학부모 측의 입장이 완강하고 학교 증설 또는 이전에 필요한 예산도 만만치 않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대책위 측은 지난 6월 학부모 총회를 열어 경양초 운영 중단 반대·학생 분산수용 반대·제3의 장소 이설·학교 준공 후 재건축사업 추진 등 4가지 결의했다.

학부모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겨울철 일조시간이 2시간에도 못 미쳐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교육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인

근 광주예술고가 옛 전남도교육청 자리로 옮겨가게 되면 경양초를 이전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광주예술고가 2021년 이전 예정이어서 분산수용을 하지 않고는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

시교육청은 경양초가 34년 된 노후 건물여서 재배치든 이전이든 22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교육청과 재건축조합 측이 어떻게 재원을 분담하느냐도 논란거리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해결책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어떻게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9 해질 18:31 | 달출몰 07:01 달지름 19:20

일교차 개요
아침기온은 복사냉각에 의해 떨어지고 낮기온은 일사로 인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4/27	보성	맑음	10/25
목포	맑음	16/25	순천	맑음	15/27
여수	맑음	17/25	영광	맑음	12/26
나주	맑음	11/27	진도	맑음	14/28
완도	맑음	15/26	진주	맑음	13/26
구례	맑음	10/26	군산	맑음	14/25
강진	맑음	12/27	남원	맑음	10/26
해남	맑음	12/27	축산도	맑음	17/22
장성	맑음	11/25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1.0~1.5	북동~동	1.0~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1.5	북~북동	1.0~1.5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보통: 파부질현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00	02:51
	20:15	15:05
여수	간조	만조
	03:25	09:44
	15:42	21:59

◇주간 날씨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	☀	☀	☀	☀	☁	☀
16/28	17/28	16/28	16/28	16/27	17/25	16/25

지역사회 ‘조선대 정상화’ 한목소리

윤장현 시장 이어 교육청·시의회 대책 마련 촉구

조선대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 각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무려 7개월째 이사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윤장현 광주시장에 이어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광주시의회 등 각계에서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 등 정상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0일 성명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인 조선대가 7개월째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부존재’ 사태에 놓여 지역민들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조선대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설립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적 임시이사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조선대의 2기 이사회는 구성원의 화합은 외면한 채 갈등과 대립을 거듭했고, 대학구성원과 지역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조선대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이미 종료된 2기 이사회가 즉시 퇴진하고, 민주적 임시이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민립대학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조선대에서는 구성원 중심으로 “2기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7명(정원 9명, 2명 사퇴)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아직 후속 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새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3명의 개방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의 갈등으로 선출 절차가 중단된 상태. 현재 이사회는 긴급사무처 리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경찰 추석 연휴 특별 치안활동

전남경찰청은 20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강·철도 등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9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 치안활동기간 동안 소규모 금융기관 등 보안시설이 취약한 금융시설과 금은방 등 현금거래 업소가

운대 여성 1인 근무업소 등에 대한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예년에 비해 긴 추석 연휴를 맞아 빈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관기동대·상설중대 등 가용력을 최대 동원해 순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